

жаттанакотта경

(жаттанакотта경-Kaccānagottasuttaṃ Venerable Kacchānagotta, 상웃따니까야 S12.1.2.5,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짜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뵸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жатта야나кот따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жатта야나кот따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жатта야나]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하는데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세존]

"жатта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жатта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жатта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жатта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어 있다. жатта야나여, 이러한 접근하고 취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주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жатта야나여, 이와 같이 올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жатта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жатта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이 소멸하며, 여섯 감각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註.

- 존재와 비존재 : atthita 와 natthita. 한역으로 有無. 유는 존재의 영원성을 뜻한다.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고 리즈 데이비스는 말한다. 여기서의 존재에 대한 견해란 존재의 영원성에 바탕을 둔 철학적 이론, 즉 영원주의로 알려진 상견(常見)을 뜻한다. 반대로 무란 존재의 불연속적인 허무성을 뜻한다. 비존재에 대한 견해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 즉 단견(斷見)을 말한다.

- 올바른 지혜로써, 즉 올바른 관찰의 지혜(觀智)와 올바른 길의 지혜(道智)로써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업(業), 무명, 갈애(渴愛)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현세의 존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적 단멸론은 사라지며, 마찬가지로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소멸해가는 것을 관찰한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적 상주론은 사라진다.

-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어 있다... : upaya 는 접근, 시도 등의 뜻을 지녔는데 붓다고씨에 따르면 두 가지의 upaya, 즉 갈애에의 접근과 사견(邪見)에의 접근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주착(住著)이란 '빠져든 상태, 새겨진 상태'를 뜻한다. 갈애나 사견이 조건지어진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때 그것들을 '나 혹은 내 것(我, 我所)'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데 가이거는 이를 경험적인 사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아 사유와 대상과의 점진적 결합과정의 절정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은 대상에 묶어버린다(繫縛). 마음이란 의미와 관계된 것은 그 다음 문장의 adhitthana(욕구, 결정) abhiniversa(성향, 貫入) anusaya(경향, 잠재)이다.

Suttantapiṭake
Samyuttanikāyo
Dutiyobhāgo
Nidānavaggo
1. Abhisamayasaṃyuttaṃ
2. Āhār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 2. 5.

Kaccānagottasuttaṃ

15. Sāvattiyaṃ -

[PTS Page 017] [\q 17/] atha kho āyasmā kaccānagott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ti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āyasmā kaccānagotto bhagavantaṃ etadavoca: "sammādiṭṭhi sammādiṭṭhi"ti bhante vuccati, kittāvatā nu kho bhante sammādiṭṭhi hotīti?

2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atthitā, sā na hoti. Upāyupādānābhinivesavinibaddho³ khvā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tañca upāyupādānaṃ cetaso adhiṭṭhānaṃ abhinivesānusayaṃ na upeti, na upādiyati, nādiṭṭhāti 'attā me'ti. Dukkameva uppajjamānaṃ uppajjati, dukkhaṃ nirujjhamānaṃ nirujjhatī'ti na kaṅkhati. Na vicikicchati. Aparappaccayā ñāṇamevassa ettha hoti. Ettāvatā⁴ kho kaccāna, sammādiṭṭhi hoti.

Sabbamatthī'ti kho kaccāna, ayameko anto. Sabbaṃ natthī'ti ayaṃ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lāyatanāṃ sal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Taṇhāpaccayā upādānaṃ. Upādānapaccayā bhavo. 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ā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Avijjāyatveva asesavirāganirodhā saṅkhāranirodho. 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Nāmarūpanirodhā salāyatananirodho. Salāyatananirodhā phassanirodho.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Vedanānirodhā taṇhānirodho. Taṇhānirodhā upādānanirodho. Upādānanirodhā bhavanirodho. Bhavanirodhā jātinirodho. Jātinirodhā jarāmarā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nirujjh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ī'ti.

Sutta Pitaka
Samyutta Nikāya
Division II - Nidāna
Book 12 - Abhisamaya Samyutta
Chapter 2 - Āhāra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2. 2. 5.

(15) Kaccānagotto - Venerable Kacchānagotta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ī.

2. Then venerable Kacchānagott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at on a side.

3. Sitting, venerable Kacchānagotta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it is said right view, for what is it said right view?”

4. “Kacchāna, the worldling for most of the time is settled in either ‘there is’ or ‘there isn’t.’

5. “Kacchāna, to him who sees, the arising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the world is not’ does not occur. To him who sees, the cessation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the world is’ does not occur.

6. “Kacchāna, the worldling for most of the time approaches the active process of collecting substratum to get settled in a bond. He should not approach and resolve, to settle in the active process of collecting substratum, not seeing the self as mine. Only unpleasantness rises, and it ceases. He should not doubt about it. This knowledge should become his own not another's. Kacchāna, with this much he becomes one of right view.

7. “Kacchāna, `everything is there' is one extreme and `everything is not there' is the other extreme.

“The Thus Gone One, not reaching to either of these two extremes, teaches in the middle.

8. “On account of ignorance arise determinations. On account of determinations arise consciousness ... re ... Thus is the arising of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With the cessation of ignorance without a remainder cease determinations. With the cessation of determinations cease consciousness. Thus is the cessation of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